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행복한  
전도가이드

만민중앙교회



행복한  
전도가이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3-15)



## 차례

하나	전도는 꼭 해야만 할까요?	5
둘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13
셋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19
넷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39
다섯	전도의 실제	47
여섯	전도 시 Q&A	79
일곱	새신자를 잘 양육하기	99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2)



하나,  
전도는 꼭 해야만 할까요?



‘전도(傳道)’란, 말 그대로 ‘도(道) 곧,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도(道)일까요? 바로 ‘구원의 도’ 즉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렇다면 전도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극히 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이처럼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전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명령이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주님의 유언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하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음 중심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내성적인 성품이라 낯선 사람에게 말을 잘 붙이지 못해요.”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행해 나가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아끼시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죄악 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며 그대로 사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는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된 길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짓값으로 인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간다면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부득불 할 일입니다.

셋째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전도를 통해 천국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한 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불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가 나옵니다. 비록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죽은 후에 구원받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죽은 후에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심없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부자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라도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줄 수 있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죽은 후에 아랫음부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 복음을 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전하여 그 증거를 보고라도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 아버지의 마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그곳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로 주린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





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

우리 역시 돌아온 탕자가 아니었던가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입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직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한 주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떨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2-14)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둘,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도한 후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떠오르거나 어느 장소로 가서 전도하고 싶어지면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한번 전도대상자로 선택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대상자를 특별히 주관받지 못했다 해도 당연히 전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일가친척,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영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이나 사업터를 의미하는 것이니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에



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둘째로,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무엇인가 얻고자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받이 착하고 중심이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신속히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 셋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막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잔치를 베풀며 풍족한 삶을 살았기에 마음이 부유해져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했으니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신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23절에는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으니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하여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이나 환난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을 좇아간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여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아파트 전도 요령



## 아파트 전도가 좋은 이유?

1. 이동거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2.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대상에 맞는 전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3. 전도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즉 주거공간이나 상가, 노인정, 놀이터 등이 한 곳에 밀집해 있어 전도에 용이하다.

## 아파트 전도 요령

1. 입주자들의 연령, 관심, 성향 등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도지, 현수막, 전도 물품을 준비한다.
2. 이삿짐이 들어올 때를 놓치지 말고 차와 다과를 대접하며 가족 관계, 아이 이름, 이사 온 곳 등을 파악한다.
3.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가가호호 방문, 정문이나 쪽문에서 차를 준비하여 나눠 마시며 전도지 나눠 주기, 상가 집중 공략 전도 등.
4. 자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GCN 방송을 함께 시청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한다.
5.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취미생활 동호회를 통해 전도하거나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여 전도한다.
6. 전도지를 늘 소지하고 있다가 통로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나누어 주며 전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18)



셋,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죄 사함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 주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므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십자가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창 1장).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분입니다. 신성은 전지 전능한 창조주 능력 자체이며, 인성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인성이 있으시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원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마 5:16).



셋째, 자유 의지 속에 순종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가정에 로봇이 있어 모든 시중을 다 들어 준다 해서 자녀보다 로봇에게 더 정이나 사랑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순종 잘하는 천사가 많지만,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자유 의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시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참 자녀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과정

첫 사람 아담은 수백만 종류나 되는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지어 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창 2:19)

생명인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만물의 영장으로 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창 1:28).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단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였지요. 창세기 2장 16~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  
여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순종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  
수 마귀 사단에게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죄의 종  
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  
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  
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롬 6:16)

###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값은 사망’ 이라 했고, 로마서 5  
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렇다면 모든 인류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원히 사망  
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영계의 법 중에는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롬 6:23), 반대로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량은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며, 아무나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대속자가 되려면 영계의 법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이러한 자격을 갖춘 대속자를 예비하셨다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 구세주로서 합당한 네 가지 자격 조건

그러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영계의 법칙에 합당한 조건은 무엇이며,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닌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성장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구세주의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 둘째,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죄의 대속자가 되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 죄인이 되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갖춘 성인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아담의 후예가 아니므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마 1:20)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십리

요한복음 19장 17~18절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 첫째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그 후손들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영계의 법칙에 의해 나무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 둘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에(히 11:19)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혼의 축복뿐 아니라 자녀, 건강, 장수, 물질의 복 등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방인에게 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 셋째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요 1:12 ; 롬 8:16).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며(롬 8:15)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만큼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생으로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생명과 일체인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정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거룩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기에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데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므로 ‘죄의 삶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면 먼저는 이 땅에서 죽어 장사된 성





도들의 몸이 부활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서 부활한 몸과 결합하지요. 뒤이어 산 채로 주를 맞은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이때 설령 이 땅에서 불구의 몸을 가졌던 사람도, 죽은 지 오래되어 형체도 남지 않은 사람도 전신이 온전한 아름다운 몸을 입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어떠한 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주 만물과 자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만 보아도 부활이 참이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데기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가 하면 굼벵이가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고 겨울의 메마른 대지는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초목의 생명으로 뒤덮이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곧 새싹이 나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은 성경상의 여러 사건을 접할 때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으로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또한 흰

옷을 입고 해같이 빛나는 신령한 형체일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다음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나 이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이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증거일 뿐 참된 부활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었다가 완전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후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여러 번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서는 장사한 지 삼 일이 지나자 부활체의 몸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십 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신을 심어 주신 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마침내 많은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행 1:9~11).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려 주었는데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마 24장 ; 살전 4장).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는데, 무덤에 장사된 육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며, 그 후에 산 채로 주를 맞는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권세와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빌 4:3), 자녀 된 권세를 누리게 되며(요 1:12),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빌 3:20),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날에 죄의 삶으로 영원한 사망인 지옥 불못에 던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계 20:15).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짝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령은 점점 소멸되어(살전 5:19)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죄의 삶인 사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할 것을 약속하셨으니(계 3:5)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빌 3:20) 깨달아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을 좇아 열심히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흠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으므로(창 2:7) 영이 사람의 주인이었고 영생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녕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창 2:17) 바로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기고 사단은 인간의 혼을 주관하여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고 정욕을 좇아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께서 죽었던 영을 살리므로 산 영과 혼, 육으로 형성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므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데, 죄를 버린 만큼 주님의 마음을 닦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곧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이 주인으로서 영의 지시에 혼이 순종함으로 영과 혼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즉 영은 사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혼은 영의 지시에 순종하는 종과 같은 위치에서, 육은 영혼이 거하



는 장막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과 혼, 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살전 5:23).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만사가 형통하도록 간구하시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요삼 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되니 참 생명을 얻은 것이요, 영원한 행복을 주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니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니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에 걸리지 않고 강건하며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고후 8:9).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도 대속하셨습니다(벧전 2:24).

그러므로 믿음만 가지면 어떤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질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한 삶을 사심으로 온 인류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부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상상 속의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존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요 14:1~3).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눈물,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 대가로 인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네것을 나누어 주어라

한 평범한 여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이 성도님은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기도 중에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함께 꼼꼼한 뜨개질 솜씨, 정갈하게 만두 빚는 솜씨가 있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우선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의 체형을 유심히 관찰하고는 뜨개질로 예쁜 조끼를 짜서 전도지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또 정성스레 빚은 만두를 찌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전도지와 함께 건네주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줌마! 교회 다니시죠? 저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예에? 교회에 가시겠다구요? 정말이세요?”

“오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교회로 데려가 달라는 아주 뜻밖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소극적인 전도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다정하고 좋은 이웃이 되는 데서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대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12)



넛,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앞서 전도는 왜 해야만 하며, 누구에게 전도할 것이며,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대상자를 놓고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전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 문을 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전도대상자를 교회에 등록시키기까지는 원수 마귀 사단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때로는 금식함으로 주변의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어야 합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영육간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때로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요.

### 둘째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 중에는 아무리 전해 주어도 완강히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억지로나 비굴하게 전도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 전도대상자를 만나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입식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습니다.

또한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한다든지, 설교 테이프나 CD,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자를 권한다든지, 꾸준히 교회 신문을 전하여 먼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한 뒤, 평안한 때에 대화를 유도하여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로만 증거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전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셋째로,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실



제 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도할 때 사랑의 마음이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한 영혼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에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관심을 가지고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 결국에는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16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넷째로, 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 문제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 해결받은 사례들을 간증해 줄 때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더욱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체험한 간증입니다. 제3자의 간증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을 전할 때 사실을 입증시키기가 쉬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전도할 때도 우선은 소문을 많이 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전도지나 간증 책자를 가지고 다니며 노방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전도지 한 장을 건네 주었을 뿐이지만 나중에 전도지를 보고 은혜를 받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하는 분들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소문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도 왕이라 불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왜 교회와 목사님 자랑을 하라는 것인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말에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의 육적인 면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권세있는 말씀 등을 널리 전파함으로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



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상대의 관심사에 접근하여 영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의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 문제 해결방법을 알려 주어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질병에서 놓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업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와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등 각 사람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 치킨집에서



“아저씨, 통닭 한 마리 주세요~”

“네에,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예~ 그러지요.”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 건넨다.

“사장님~ 저기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글쎄요”

“사장님, 통닭집 하시면서 그걸 모르세요?

그럼, 사장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눈이 몇 개지요?

“아 그야 두 개이지요~”

“눈 두 개, 눈 밑에 코 하나, 콧구멍은 두 개, 그 밑에 입 하나,

귀 둘이죠? 왜 이렇게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글쎄요.”

“이게 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닭이 먼저인 거예요.

아무리 아리송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너무 쉽다니깐요.

사장님도 얼른 하나님 만나시고 축복 몽땅 받으세요~”

“하루 24시간 중 단지 10분,

전도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바들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16)



다섯,  
전도의 실제



## 1. 전도의 유형

사람마다 여러 가지 전도의 유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정립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에 참된 쉼을 주는 목자를 만나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을 이루어 목자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름대로 말씀을 정립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헌신적인 행함으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



큼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에 입각해서 전도할 수는 없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나도록 헌신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전도되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뜨겁게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것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여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열심히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첫째로, 전도하고자 하는 행함이 가슴이 벅차 오르도록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모양은 다르지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 주든 알아 주지 않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 등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러 헌신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전도자의 유형에 속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비록 말씀을 유창하게 증거하지는 못한다 해도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 전도의 방법

많은 성도가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전도를 하고 싶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행해 나가다 보면 전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간접 전도와 직접 전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간접 전도

간접 전도 방법은 복음이 담긴 인쇄물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문인 ‘만민뉴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생한 간증 등도 실려 있어 좋은 전도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문을 전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 신문에 본인의 연락처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문에 적힌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 교회에 찾아오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도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인도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또 신문을 전한 여러분의 입장에서든 신문을 통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직접 체험한다면 그때의 기쁨은 참으로 크고 더욱 전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직접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 해도 이후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전한 신문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상급도 분명히 전도자인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둘째, 집 주변의 지역을 정해 지속적으로 교회 신문을 전해 주며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여러분의 집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역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교회 신문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 쉽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습니다.

※ 소정의 우편 요금만 납부하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주소로 정기적으로 신문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몇 장의 전도지라도 늘 가지고 다니며 누구에게든 전해 줍니다.**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몇 장의 전도지라도 늘 소지하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든지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식사한 다음 주인에게 음식 맛이 너무 좋다고 칭찬해 주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며 교회 신문 한 장을 건네주고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를 탔다면 기사님이 운전을 잘하셔서 참 편안하게 왔다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전도지를 건네줄 수도 있지요.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 2) 직접 전도

직접 전도는 간접 전도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도 방법으로 일정 지역이나 특정한 대상을 목표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전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도할 지역을 정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우선 전도 대상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집집마다 전도지

를 돌립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 전도지를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려서 그곳에 사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전도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타 종교를 갖고 있다며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나 새로 이사와서 어느 교회에 나갈지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지역을 목표로 삼았다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문전박대하고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이라 해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전박대해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웃으면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계속해서 전도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는 것은 전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서너 번, 또 어떤 분은 대여섯 번의 방문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더 많이 방문해야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1년, 2년, 3년 전도하여 열매를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 3.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자는 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방법들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영으로 들어와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아 전도를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와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 인도를 받으면 상대를 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생각을 미리 알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수월해집니다.

#### 2)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고 믿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사랑과 덕이 곁들여진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하며, 담대함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 4)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 5)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게 되니 전도가 수월해집니다.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한다. 교회를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게 되며 자연스럽게 핍박받을 일도 없게 됩니다.

#### 6)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농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실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주위에 신뢰를 쌓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으려고 하게 되지요.

#### 7)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배움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이가 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8) 지속적인 사귀를 통하여 상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방문 시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 가정의 많은 것을 파악하여 기록해 두며 대화 가운데 얻은 정보가 있으면 잊지 말고 꼭 마음에 기억해 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그 가정에 도움될 만한 것을 준비하여 가며 지속적인 사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9) 상대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전도대상자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며 전도할 때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전도대상자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 10) 간접 전도보다 직접 전도를 해야 합니다.

길거리 전도보다 주변 전도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갈무리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일가친척, 이웃,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부터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전도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또한 전도대상자에



맞는 방법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꼭 이것만이 정도(正道)’라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혼들을 대하면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는 것이 자신만의 전도 비결이 될 수 있지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방법을 모방하여 시작하지만 차츰 자신만의 방법이 터득됩니다. 따라서 전도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는 전도를 잘하는 분을 따라다니며 열심히 배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힌 후에 혼자서도 해 보면 어느새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항상 배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안 될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다시 도전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기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 4. 전도의 실례

지금부터는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떠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첫째로, 선한 지혜를 받아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



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함께 선의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다 보면 상대가 귀찮아할 수도 있고, 아예 모른 척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욕을 하면서 심한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다른 신도 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더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인사하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그 사랑을 받는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밝은 모습 자체가 상대에게는 아주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처럼 다음에는 그 마음이 한층 더 누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전도대상자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학용품이나 과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싼 것을 주고 전도대상자의 아이에게는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내게 있는 것이나 쓰고 남은 것을 나눠 주는 차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그 진심이 상대에게도 통합니다.

어떤 전도자는 맞벌이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밑반찬

을 만들어 주곤 했는데 모처럼 자녀들과 맛있게 식사하려고 찌개를 끓였다가 전도대상자가 생각나서 냄비 채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운 나머지 식사를 할 때도 전도대상자가 눈에 아른거리니 이 같은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는 연로하신 분들에게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보다 더한 사랑으로 섬기되 다정한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하고 팔다리를 시원하게 주물러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고 각종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전도대상 지역에 새로 이사 오는 가정이 있으면 자기 일은 뒤로하고 이사를 도와줌으로 좋은 이웃으로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시장이나 공공 기관, 또는 아이들의 놀이터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알려 주고 여러 모로 도움을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대상자의 집안일에 희생과 헌신으로 힘이 되어 주는 경우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대상자의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애경사가 생기면 자기 일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힘이 되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굶은일이 생겼을 때,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리





스도의 향기를 발한다면 상대가 그 일에 고마움을 느끼고 감동을 받아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도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위안이 되어 주고 돌보아 주는 것도 전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아픈 사람은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심령도 가난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 준다면 전도를 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당장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환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면 그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넷째로, 직장이나 사업터에 단골이 되어 전도하는 경우입니다.**

식당이나 세탁소, 미용실 등의 단골 손님이 되어 전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당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 끼니때마다 그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전도함으로 결국은 열매를 따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원의 원장님을 전도하기 위해 자기 자녀는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까지 학원에 등록시켜 주며 전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그 모든 방법의 공통

점은 전도대상자를 위해 변함없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성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면 어찌 마음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영혼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전도한다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결국 마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5. 전도 시 에티켓

### \* 복 장

- 화장이나 머리 모양, 액세서리 등이 지나치게 요란스럽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으로 하되 때와 장소에 맞으며 전도대상자의 수준에 알맞게 한다.
- 전도 자료가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도대상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출발 전

-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한다.
-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먼 곳을 갈 경우



교통 혼잡을 예상하여 약속시간보다 가능한 일찍 출발한다.

- 상대방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여 형편을 파악한 후 방문한다.
- 가는 도중 잡담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에 관련된 내용이나 전도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

#### \* 현관문 앞에서

- 외모를 정결히 하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 번 점검한다.
- 위협적이지 않도록 여성도님이 잘 보이는 곳에 서도록 한다.
- 안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해도 상대방이 권유할 때까지는 먼저 거실이나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 소유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 신발은 현관문 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들어간다.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는다.  
만약 허락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캐묻지 말고 다음에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약속받는다.

#### \* 복음 증거 시

- 전도대상자를 가장 편한 자리에 앉게 한다.

-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대화에 가장 적절한 자리에 앉게 한다.
- 복음 증거 중에 다른 팀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들(전화, 친구, 이웃집 개, 우는 아기, 외판원, 반려동물 등)을 물리쳐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 가능한 한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 \* 대화 시

-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말을 잘 들어주며 중간에 막지 않는다.
- 확실한 언어 사용으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되 대화를 독점하지 않으며 적절하게 응수한다.
- 상대의 약점, 단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 자기 자랑을 피한다.
-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화제와 언어 선택에 신경을 쓴다.(정치적이거나 논쟁이 될 만한 이야기 등 상대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화제는 피한다.)
- 날씨, 유행, 실내장식, 운동, 취미, 가족 이야기 등 비교적 편안한 화제로 접근한다.
- 예의 바른 언어를 구사한다.  
(경어를 사용하며 전문용어는 피한다.)
- 복음 증거는 요점을 간결하고 요령있게 설명하며 예화나 자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 무리한 언행을 삼가고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상대의 이름을 기억한다.
- 상대의 관심을 파악한다.
- 항상 밝은 얼굴로 상대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마음 자세로 대화한다.
- 거절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
- 항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을 잊지 않는다.

## 6. 복음 제시

### 제시 1)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 자유 의지 속에 순종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죄가 없는 생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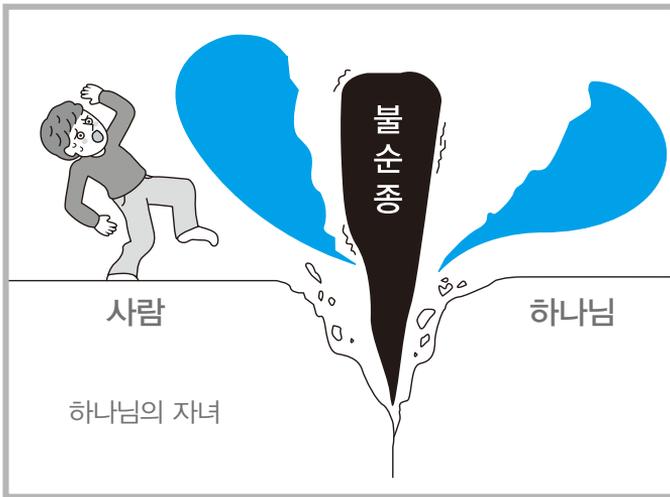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 제시 2)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 제시 3) 죄의 삯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의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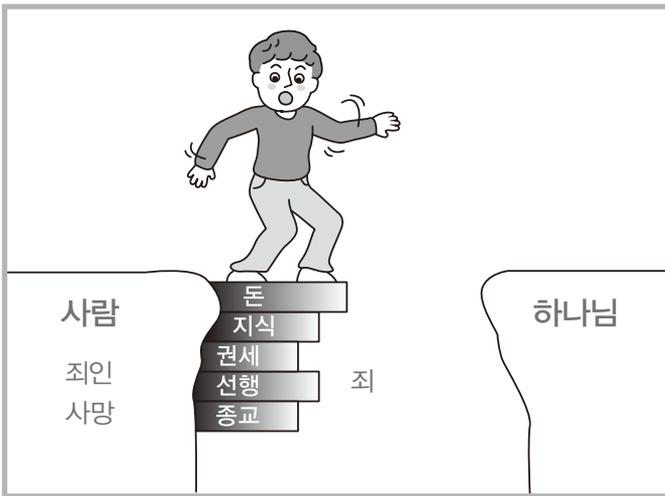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 제시 4)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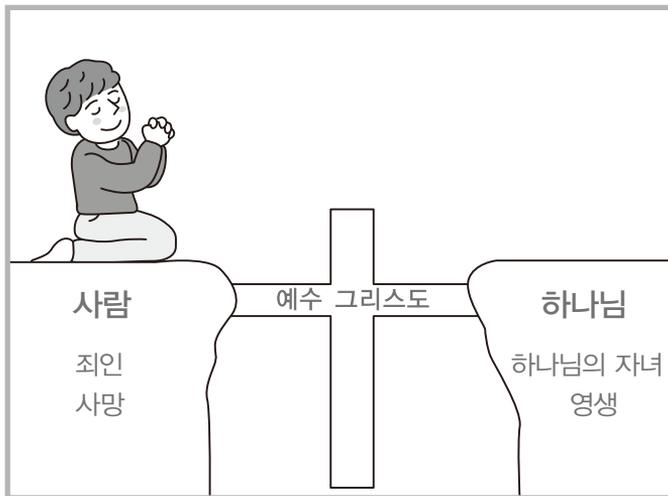
사람들은 돈과 지식과 권세, 선행이나 종교, 철학 등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 제시 5)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 제시 6)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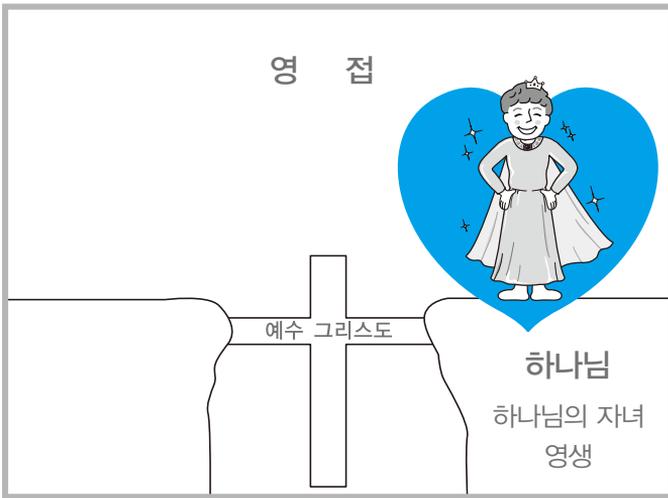
-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 제시 7)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 나라 시민권을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 5:24)

## 7. 결신기도의 예

OOO 성도님께서 참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한 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 <기 도>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저에게도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 오셔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전도를 위해 외워두면 좋을 말씀 Best 7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전도할 때에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②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③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④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⑤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 ⑥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⑦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 전도의 TIP 55가지

1.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라.
2.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전도대상자의 마음 문이 열린다.
3. 전도대상자의 성격과 기질을 알고  
그에 알맞은 방법으로 전도하라.
4. 전도자가 곧 크리스천의 거울임을 기억하라.
5. 주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와 같은 심정으로 전하라.
6.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7.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대상을 찾아라.
8. 전도대상자를 자주 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9. 전도자가 먼저 성령을 체험하라.
10.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
11. 전도대상자의 부정적인 질문에도 온유하고 섬세하게 답하라.
12. 무익하고 쓸데없는 잡담은 피하라.
13. 이성(異性)에게 전도할 때는 반드시 최소 두 사람이 동행하라.
14. 하나님은 전도자와 함께하시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5. 옷차림을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라.





16. 친근한 태도와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화하라.
17. 처음부터 부담스럽고 질리게 하지 말라.
18. 교회까지 모셔오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라.
19. 약속시간보다 30분 먼저 가서 기다려라.
20. 처음부터 교회 나오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 구경가자”고 하라.
21. 담임목사님을 자랑하라.
22. 이삿짐 옮기기, 애경사 챙기기 등 전도대상자를 위한 봉사를 아끼지 말라.
23. 전도의 열매를 따기까지 절대 낙심하지 말라.
24. 전도하러 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라.
25.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라.
26. 전도대상자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라.
27.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라.
28.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심어주라.
29. 전도대상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라.
30.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를 놓치지 말라.

31. 전도지나 간증 책자, 모바일 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라.
32. 복음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라.
33. 전도자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할 때는 최대한 겸손하라.
34. 생활에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접촉점으로 삼아라.
35. 전도대상자의 시급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라.
36. 전도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필수다.
37. 전도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선물하라.
38. 미소 짓는 얼굴로 인사하라.
39. 전도 노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도하라.
40.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라.
41. 구역 모임이나 기관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42. 주일에 교회로 인도할 때는 가능하면 그 사람의 집에서 만나라.  
다른 장소에서 만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
43. 성경 구절은 펜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게 하라.
44. 모든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되 교훈적으로 하지 말라.





45. 강압적으로 못이겨 마지못해 결신하도록 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
46. 상대가 냉담하게 반응하고 반대하더라도 미소와 겸손을 잃지 말고 재치있게 대응하라.
47.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칭찬을 해 주라.
48. 작은 성경을 항상 휴대하라.
49. 토론이나 논쟁은 절대로 피하라.  
실령 이기더라도 사람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
50. 자신의 간증을 실감나게 하되 자랑이 되지 않게 하라.
51. 구원받은 간증은 넘치는 기쁨과 열정을 갖고 하라.
52. 상대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피하라.
53. 대화 시 전도자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에 확인하라.
54. 전도를 생활화하고 전도대상자를 계속 채워가라.
55.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여섯,  
전도 시 Q&A

## 〈전도 시 자주 받는 질문〉

1.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무엇인가요?
2. 천국은 정말로 있나요?
3. 성경이 왜 진리라고 하나요?
4.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어떻게 아나요?
5.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나요?
6.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7. 제사와 추도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요?
8. 교회에 가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9. 교회를 다닐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10. 난 불교를 믿어요.
11.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못 믿겠어요.
12. 원수 마귀도 권능을 행할 수 있나요?
13.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무지개를 자주 본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14. 권능의 손수건은 무엇인가요?





전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적절한 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 짜증이나 화를 내지 말고 온유하고 자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 3:15-16)

### Q1.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이란 무엇인가요?

❖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단에 대한 정의가 무엇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단이라는 단어가 총 다섯 번 나오는데, 이단에 대한 정의는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에 보면 이단에 대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나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인이 되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피 값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이전에는 ‘이단’이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야 ‘자기들을 사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이단에 대해 경계할 것을 알려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단이 아니요, 반대로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이는 단연코 이단에 속하는 것이니 이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삼위 일체(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며 이단인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는 개인이나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 Q2. 천국은 정말로 있나요?

❖ 천국과 지옥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는 성경이 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는 많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바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숨을 쉬는 것을 통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참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마 3:2, 4:17, 23)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권능의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온 사람, 혹은 임종 직전에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Q3. 성경이 왜 진리라고 하나요?

❖ 사전에 보면 진리란 ‘참, 진실, 참된 이치’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라면 그것이 시간과 장소와 상황, 환경 등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변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경 안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 Q4.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어떻게 아나요?

❖ 천지 만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나 짐승, 새, 바다 속의 고기와 온갖 곤충의 모습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눈 밑에 코 하나, 콧구멍은 두 개, 그 밑에 입 하나, 양옆에 두 귀, 각각의 위치 선정까지도 일정하고 그 수도 모두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 의하여 설계되고 창조되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롬 1:20).

또한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출 14:15 이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민 20:8),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출 16:4, 13) 등 수많은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 귀신들린 자들을 치료하셨으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성경 곳곳을 통하여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고 때가 이르매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과(슌 9:9), 예



수님의 부활과 승천(시 16:10, 68:18), 가룟 유다의 배반(시 41:9 ;  
 슥 11:12) 등을 예언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에 대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 Q5.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나요?

❖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행  
 위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  
 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마음에 심겨진 의의 도, 곧 양심을 좇  
 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심의 법이 행위의 기준이 되니 선한 사람은 아무리 힘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악을  
 행치 아니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좇아 악을 행하며 살았  
 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이 율법이 되게 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셨  
 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심판입니다(롬 2:14~15).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천하 만물의 오묘한 변화와 조화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선을 좇아 살았습니다. 또한 양심에서 내세가 있음을 증거하므로 현세의 쾌락을 좇아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키며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신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 충성하였지요. 이처럼 선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해도 하늘을 두려워하여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힘씁니다. 따라서 복음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Q6.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수양을 위해,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내세를 대비하는 종교로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중에도 사후 세계 즉, 내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직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참 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도 중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설명해 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전한다.)

### Q7. 제사와 추도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요?

❖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 하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조상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죽은 조상의 영혼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게 되지요.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대상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 앞에 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고전 10:20).

이와 달리 추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은혜를 나누며 믿지 않는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지 않은 고인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예배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죽었든지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든지, 고인을 위해 상을 차리는 행위는 귀신 앞에 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도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예배드린다면 가하다는 것입니다. 단, 추도 예배 시 제사처럼 음식상을 차려놓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예배상에 성경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과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도 예배라는 형식에 굳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 아직은 굳건하지 않기에 가족을 위로하고 믿음을 더 돈독히 하려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고인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으며 천국 소망 속에 믿음이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이라면 굳이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가합니다.

#### Q8. 교회에 가지 않아도 선하게 살면 되지 않나요?

❖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 그의 죄성은 후손에게 유전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원죄(原罪)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죄성이 유전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닌 죄인이 되는 것인지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살도 채 안 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먹여 보십시오.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밀쳐내려 애를 씁니다. 아이가 젖을 놓지 않으면 그 아이를 때리거나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도 엄마가 모른 척하면 ‘앙!’ 하고 울어 버립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시기, 질투, 미움, 욕심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 그러한 악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이를 통해 사람에게는 부모로부터 기를 받고 타고난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죄 외에도 사람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自犯罪)가 많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등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미움, 판단, 간음, 욕심 등 마음에 악을 품는 것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롬 3:20, 23).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앞서 양심심판에 의해 구원받는 선한 사람들도 자신의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천국에 속한 율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 Q9. 교회를 다닐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마음만 있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주일에도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주일 밤에 드러지는 빛과소금선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여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 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당장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다가 내일이라도 어떤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루 전날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을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지요?



### Q10. 난 불교를 믿어요.

❖ 시편 115편 4~7절에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빈다고 해서 그것이 듣고 답을 하거나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깨우침과 가르침 중에는 물론 선한 것이 많지만, 그렇다하여 그것을 배우고 수양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조건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 Q11.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못 믿겠어요.

❖ 교회는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그 안에는 이런저런 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 그런 사람 중에 일부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고 실족하여 교회를 등진다거나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도 간혹 대학생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류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극히 일부가 그런 사람이라 하여, 그 대학교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류대학교에 그런 사람 몇몇이 있다 하여 자기 자녀에게 그 학교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할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여 교회가기를 꺼려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Q12. 원수 마귀도 권능을 행할 수 있나요?

❖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원수 마귀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권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영역이며 원수 마귀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지만 거짓 선지자 즉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창조의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생사회복을 주관하는 권능, 역사를 주관하는 권능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잉태의 축복은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요 9장)도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이지 원수 마귀는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수 마귀도 할 수 있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거나 잉태도 시켜 줘서 영광받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며, “나를 믿으라, 내가 참 신이다.”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다만 원수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비진리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만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은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Q13.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무지개를 자주 본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 1998년 5월 15일, 우리 교회 상공에 해를 두른 원형무지개가 출현한 이후 국내외 각종 집회나 행사 시에는 물론, 지교회 상공을 비롯한 곳곳에서 희한한 무지개를 수시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해나 달을 두른 원형, 일자형, 대칭형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무지개를 합쳐놓은 듯한 복합적인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성경을 보면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계 4:3),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창 9:16)라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언약의 증표로 본교회 및 국내외 지교회에서 각종 행사 시 2중, 3중, 4중 원형 무지개는 물론, 각종 희한하고 다양한 무지개들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 Q14. 권능의 손수건은 무엇인가요?

❖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이란 하나님께서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그 손수건에 하나님의 권능

을 담아 주셔서, 그 손수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할 때,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악귀와 귀신들이 나가며 마음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더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권능의 손수건을 가지고 대형 집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회를 통해 수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전도를 위한, 전도에 의한, 전도의 삶!

전도와 일상생활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전도에 초점을 맞춰 삶을 바꿔 나갈 때 전도가 나의 것이 된다.

1.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기도한다.  
기도 중에 떠올려 주시는 영혼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하자.
2. 식사 때마다 전도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날마다 하루 한 명 이상에게 전도하자.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자.
3. 물건의 질이나 음식맛에 치중하기보다는 전도대상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을 찾자.
4. 목욕탕이나 미용실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전도하자.
5. 가방 속에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자.  
갈급한 영혼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른다.
6. 기도카드에 전도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화장실, 식탁, 화장대,  
주방 등에 부착해 놓고 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자.
7. 전도대상자의 집에 전도지를 꾸준히 보내자.  
그가 전도지를 읽는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8. 1주일에 1시간 이상은 시간을 정해 놓고 전도대상자들을  
방문하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19)



일곱,  
새신자를 잘 양육하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한 영혼들을 갈무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믿음의 반석에 서기까지는 기도와 심방, 상담 등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살피 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의 성장과정을 거쳐 장년에 이르듯이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성장과정이 있는 것이지요(롬 12:3).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 12~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믿음을 자녀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진리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행치 못하는 것도 있는 믿음은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청년들의 믿음이란 아직 신앙의 깊이나 영적인 분별력은 온전하지 못하다 해도 말씀이 그 안에 거하므로 능히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깨뜨리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여 굽힐 줄 모르는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이 되면 인생의 경륜을 통해 앞뒤를 재고 좌우를 살피며 상황판단을 잘 하여 경우에 따라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아주 자세히 태초부터 앎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깊고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빌 2:5~8). 전도된 영혼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몫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사도 바울이 말한 ‘해산하는 수고’이지요(갈 4:19). 그러면 새신자를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양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 1)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첫째,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롬 10:17).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진리 자체가이시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으로 가르침받을 뿐 아니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 둘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렘 29:12~13).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 셋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찬양을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전이나 기도회를 하기 전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바로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요. 그러므로 중심을 다해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 넷째,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항상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솔로몬 왕은 일천 번의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제사가 바로 신약 시대의 예배로 바뀐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양육 2 )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믿음이란 유(有)에서 유(有)의 창조, 예를 들면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는 등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육적인 믿음에는 진리 안에서 온전한 행함이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2:26).

다음으로, 영적인 믿음이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식에 맞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를 믿는 믿음ियो,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건넜던 것이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이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21). 그러면 영적인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 첫째,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롬 8:7).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 둘째,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비진리의 이론과 지식을 빼내어 버리는 만큼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의심없이 믿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 셋째, 진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즉 “기도하라, 섬기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등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함이 따를 때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 양육 3 )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행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던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선한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중생(重生) 즉 거듭남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요 3:3~8).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악이며, 버려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하나하나 버려 나갈 때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도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대로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행하지 않고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더불어 “하라, 지키라” 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나가면 마음 안에 진리가 채워지지요. 이렇게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채워가는 것이 곧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죽은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 **양육 4 )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53~55).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는 인자의 살과 피는 무엇이며 어떻게 먹고 마셔야 할까요?



##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셔야 하듯이 하나님 말씀인 인자의 살을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참된 음료로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 곧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작용이 잘 이루어져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흡수되고 불필요한 노폐물은 배설되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영적인 영양분인 진리는 흡수되고 노폐물인 비진리와 악은 배설되므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식을 삼아 그대로 준행하면 그와 반대되는 미움은 노폐물로 배설되고 사랑이라는 영양분이 흡수됨으로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또한 악을 빼내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양식을 삼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참 믿음을 소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큰 상급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심방의 요령

심방은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갈무리하는 것으로 교회 부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

## 〈심방의 목적〉

1.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2. 성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3.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기 위하여
4.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원수 마귀 그리고 자신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 〈심방의 방법〉

1. 상대의 믿음의 분량을 파악해야 한다.
2. 상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3. 영적인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4. 진리에 맞추어 상담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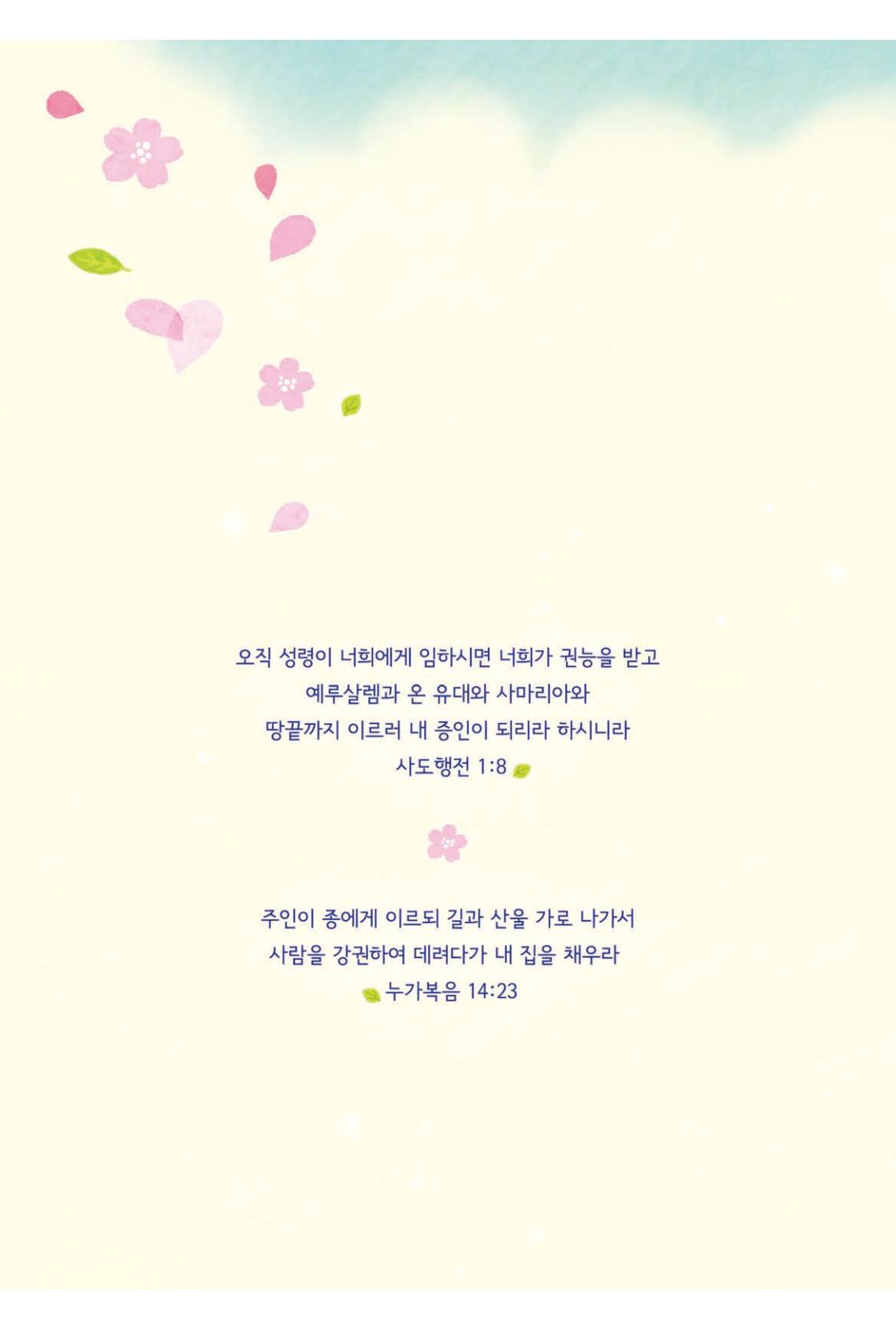
## 〈심방자의 자세〉

1. 상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
2. 지식은 있으나 체험이 없으면 행할 수 없으므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한다.
3.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의 의를 온전히 이뤄야 한다.
4.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만 있어야 한다.
5.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한다.
6. 불같은 기도와 말씀무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성도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7. 진리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해야 한다.
8.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목자를 심고 가르쳐 나가야 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다니엘 12:3)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